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김 정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한해가 되었다.

한 나라 역사에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지난 1년이 지구상에 준할 수 없는 류례없이 있었다. 이 한해 통틀어 온 세계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과연 어떤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정치가, 인민의 영도자이신가 하는것을 더욱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집술한 위인을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펼쳐온 영광의 나날에 대한 추억이 천만근민의 심장속을 뜨겁게 달구어준다.

지금도 우리 근대의 인민의 가슴 가슴은 주제 105(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신 것만큼 뜨겁게 끓어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신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을 끝없이 밝은 전망을 펼쳐준 커다란 경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국민이 똘똘뽀뽀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혜제일강국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위대한 그의 혁명활동 소식은 공식 보도된것만 해도 벌써 여섯달을 넘는다. 그 불변불휴의 로고 속에 풀린 우리 인민의 행복의 세계는 얼마나 환희롭고 우리 조국이 올라선 국력의 높이는 얼마나 가슴 뿌듯하게 하는것인가.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치과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

주체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떨쳐주는 위대한 영도

하신 소식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여운을 새겨주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 할 치과위생용품공장건설을 직접 감리하시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성취를 수시로 표해하시였으며 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생산설비를 입식으로 보내주시였고 부소 환관급 현지까지 나오셔서 질좋은 치과 위생용품들을 인민들에게 댈수지 말고 보장해주어 인민들이 그 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도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술과 지약, 합수약을 비롯한 치과위생용품들은 인민생활의 너무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면서도 절실할 필요를 소비품이다. 흔히 사람들이 크지 않거늘 여기는 이 치과위생용품이 인민들이 리용하는것이기때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은 우리 원수님께서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으로서 마음속 첫사랑이 있다.

이해의 뜻깊은 6월에도 우리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은 어느것이나 이렇게 인민과 직결되어있었다.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열정까지 영연호를 흐르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리용할 약수맛까지 친히 보아주시신 강사약수공장에 대한 현지지도, 소년 단원들이 조국의 만년대계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남수록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은 보다 배태해지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은 더욱 빨라지게 된다고 하시며 온 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속 안으로 침착하신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인민의 행복을 생활속에 드러내는 젊은구름을 일제에 날려버릴 강위력한 수단에 대한 시험발사를 보시고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살피

키우며 양육하시는 우리 원수님이다. 세계에 위인도 많고 정치가들도 적지 않지만 인민들이 리용할 지술, 지약을 비롯한 위생용품과 약수에서 솟아나는 약수에 이르러까지 그로록 마음쓰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세를 새겨가시는 그런 절실한 국가영도자가 어디에 또 있었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거룩한 영도자육과 더불어 우리 인민이 머지않은 행복의 웃음소리, 온 나라 아이들이 울리는 노래는 《세상에 부럽없으리》의 노래소리, 여기에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함미가 숨어있다고도 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민의 행복과 동행하여 진정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에게도 필요하고 어디에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국력은 해서 무엇이겠는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으로 드러지는 국력, 이것은 우리 조국이 온 세상에 떨치는 가장 큰 자랑의 하나이다.

명실공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주체조선의 국력 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무엇보다 큰 힘을 쏟으신것이 선군이었다. 국력이라 국력이라고 할수 있다. 무적의 총대만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지킬수 있다. 선군이야말로 최대의 애국, 최고의 인격이며 무한대의 창조이고 무궁한 번영이다. 력사의 기적이 창조되고 위대한 변혁의 세시대를 열릴 지난 한해가 다시금 이것을 확정하였다. 지나온 한해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더욱 약탈해지 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난관과 시련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최고기준으로 삼으셨다는 인민의 리익과 행복이었고 국지중의 최대국사로 내세우신 것인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국방강화였다.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비활한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십시오!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인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 길에는 적들이 총구를 도사리고있는 위험천만인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의 장세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에 대한 현지지도도 있고 전쟁 생애를 하는 원수님께서 펼치는 선군인민군 전방군 화성포병부대의 안도르케트발사훈련지도도 있다.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위력을 바탕으로 강화하는데 공헌한 다 하더라도 인민의 행복과 동행하여 진정이라면 그것이 누구에게도 필요하고 어디에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국력은 해서 무엇이겠는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열정까지 영연호를 흐르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리용할 약수맛까지 친히 보아주시신 강사약수공장에 대한 현지지도, 소년 단원들이 조국의 만년대계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남수록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은 보다 배태해지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은 더욱 빨라지게 된다고 하시며 온 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속 안으로 침착하신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인민의 행복을 생활속에 드러내는 젊은구름을 일제에 날려버릴 강위력한 수단에 대한 시험발사를 보시고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살피

너무도 거브서 국방과학자를 얻어 주신 원수님. 불철의 국력강화를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정력적인 영도는 로케트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3.18혁명》의 폐송을 가져오고 주체조선의 국방공업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한 5월의 기적도 안아왔으며 우리 식의 위대한 주체무기들이 련속 태어나게 하였다. 사형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수놓은 선군전쟁의 그 거룩한 자욱과 더불어 내 조국은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더욱 우월 솟아올라 우주에 닿은 무진막강한 국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라의 전방적인 국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움없이 잘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라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는 선군정치적의 특색이 있다. 그이의 위대한 헌신적복무의 그 길에서 꽃피는것이 우리 인민의 가슴에 핏줄이 되었다.

사회의주의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 의 표시인 리명거리기 그것들 잘 갑해준다. 우리 불철의 용대한 건설구상과 정밀적인 영도의 의하여 1년동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선 리명거리리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건축물들의 종합체이기 전에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에 대한 일대 시위이다.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힘입어 과시하며 일떠선 리명거리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의와도 같은 사랑이아말로 대량조선의 강대성의 근본원천이라는것을 특별히 보여주었다. 적들의 각종 력전정찰장비들이 우리 공화국을 엄습을 위협하고있는 때였지만 인민군인들을 강력한 건설력장으로 파견해주시고 새로 일떠서는 거기가 철두철미 인민의 편과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인민의 리명거리기를 하여주시니 마음속

경애하는 원수님. 때로는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서, 때로는 하늘의 별들도 초하는 길은 밤에도 리명거리형성인의 결과 선을 그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패의 로고를 여러 한무디더로 다 전해줄수 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상위 문명이 응축된 리명거리기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리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의 풍요로운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인민들에게 태양일기 리명거리 건설을 완비했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정말 좋다.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위대한 사랑의 품에 우리 인민이 안겨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중동학원을 현지지도하신 사연도 그이의 이 말씀에 소중히 담겨있고 리명 거리에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시어 영애군인들이 뛰놀는 크지 않은 입도 대견히 여기시며 온 나라가 입도록 해주신 감동깊은 사랑도 이 말씀에 그대로 여겨졌다.

평양사과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태동강우주기공장, 용강산림용광,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용광, 류정안과총합병원, 북양산비누공장, 원산 구부용광, 류정김치공장... 우리 원수님께서 지난 한해동안 찾으시신 수많은 단위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대한 고마움의 격정이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로 진폭이 온 메아리를 울 리는 인민의 행복담을 웃음소리와 더불어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더욱 힘있게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로록 사랑

하신 우리 인민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여야 한다. 이 땅의 천만근민이 끝없는 행복속에 웃음을 활짝 피울 때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국력이 더욱 강해진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가장 숭고하고도 열렬한 인민적이고 인민 사랑의 세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속에 참다운 삶도 행복도, 아름다운 희망도 꽃피어 그 나라 천만근민은 위대한 어머니 그 품에 운명의 명줄을 엮고 산다.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 혼연 일체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을 기념하시어 평양사과공장을 찾으시어 영애군인들이 뛰놀는 크지 않은 입도 대견히 여기시며 온 나라가 입도록 해주신 감동깊은 사랑도 이 말씀에 그대로 여겨졌다.

인민의 행복담을 웃음소리와 《세상에 부럽없으리》의 노래소리로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민에게 펼쳐주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렇다. 나라의 인민의 최고의 국력을 발달시키는 위대한 것이다. 비록 나라는 크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다 해도 절세의 위력을 높이 모시면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질수 있으며 존엄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수 있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천만근민이 더욱 심장깊이 새긴 력사의 진리이다.

우리 근대와 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에 입실당함으로써 당 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방적발전과 전투적개혁을 결사 관철함으로써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온 세상에 떨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넘치는 사회주의적열정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영원히 무궁번영하리라. 본사기자 혁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꽃피운 감동깊은 이야기

야 영 소 의 새 풍경

날마다 새 모습으로 전변되는 조국강산에 후대들을 위한 재료가 늘어나고있다. 학생소년들의 과의교양기지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 6일소년단야영소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 주고있는가. 2개 호통의 아열각과 식당, 해수욕장, 회관, 체육관, 아리무대 등을 갖춘 운동장, 조약수조와 볼이끄림대가 갖추어진 수영장, 로라에트장... 후대들을 제대로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

행 복 의 보 금 자 리

우리 아이들은 먹단골의 금은보좌에 빈곤이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중동학원을 찾으시어 영애군인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의 일이다. 평양중동학원과 울라리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일떠선 학원의 정경을 완하신 웃음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말 보기 좋다고, 아이들의 등성에 맞게 아이기까지 건설을 잘했다고 하시였다.

가 방 사 래, 가 방 풍 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지난 1월 어느날이었다.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가방공장이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방사래, 가방풍년이 들었다고 하시며 못내

백 두 산 의 역 섯 기 상 을 닮 으 라

혁명의 준진물로 자라고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미친 듯이 달려온 원수들의 발악적인 행위가 악랄해지고있는 오늘날 혁명전투요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관련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투로 훈련시키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이다. 이 때문에 본지에서는 청년들의 혁명전투를 명목으로, 피조기로 하여 혁명의 넋대들을 활기차게 이끌어오신 위대한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백두산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존엄과 승피, 강대성의 상징이다.

푸 른 하 늘

슬픈 아이를 안고 혼신히 너닌 들의 그 가슴터치는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도 지구의 곳곳을 무거운 마음으로 삼고 각중 살인장비와 무인기로 공습을 떨어뜨리고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비참한 광경이 이 땅에서 재현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강력한 국방공업의 토대에서 놀음들 건틀케 하는 무고한 인민들이 태어나고 주체무기의 숲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이 어 떤 이 밤 에 졸 락 단을 꾸 려 주 겠 는가

6월 29일, 한해전지 뜻깊은 그날 우리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그날은 감격과 환희의 안개 속에서 밤이 깊어지고 있다. 혁명의 이 아침 한해를 더듬어보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하늘에 닿았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절세 위인의 자태로운 모습이 여려온다.

이 어 떤 이 밤 에 졸 락 단을 꾸 려 주 겠 는가

6월 29일, 한해전지 뜻깊은 그날 우리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그날은 감격과 환희의 안개 속에서 밤이 깊어지고 있다. 혁명의 이 아침 한해를 더듬어보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하늘에 닿았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절세 위인의 자태로운 모습이 여려온다.

이 어 떤 이 밤 에 졸 락 단을 꾸 려 주 겠 는가

이제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이 어 떤 이 밤 에 졸 락 단을 꾸 려 주 겠 는가

이제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지내에 11월 24일 조종의 산 백두산에 사나운 칼바람이 불어오고 북기 드문 대강설이 산야를 뒤덮었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진 강우진압을 해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동녘하늘에 아른하늘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누르누르 닦이는 젊은 노을이 백두산의 용진장광함을 더해주고 있었다. 누수신 태양이 하늘땅을 붉게 물들이며 솟구쳐오르는 장쾌한 모습은 황홀하기 그지 없었다. 인민들이 백두산해돋이장관에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백두산은 세계의 그 어느 산과도 대비할수 없는 천하제일의 명산이라고, 조선의 혁명화가 백두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군 길을 끝까지 이어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면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아야 한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시 백두산정에 메아리쳤다.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백두의 혁명전투를 혁명의 만년보검으로 훈련시켜 우리 조국의 위대한 수령님을 지키기 위하여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백두의 혁명전투를 혁명의 만년보검으로 훈련시켜 우리 조국의 위대한 수령님을 지키기 위하여 백두산의 역섯 기상을 닮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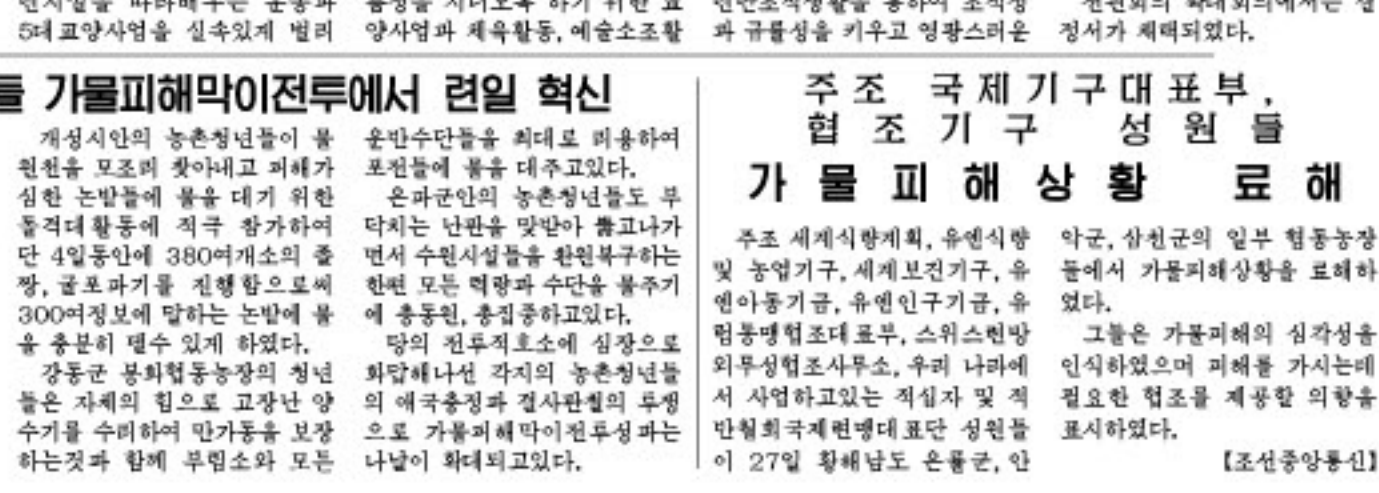
우리들의 무기체계가 숲을 이를 내 나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에 다달았으며, 만민적으로 이룩한 국력강화의 기적들을 생각하며 가슴부르는 우리 근대와 인민이다. 건국의 날이 땅에 졸락단을 꾸려주어 미제공비탄들에 대한 승리적 리명거리를 이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시시각각 진행되는 불구름을 쏟아오는 원수님의 책들을 짓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총결사전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민협동작전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위력한 투쟁방식입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떠들썩한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카뭇카의 무

징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조국과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막아서는 애도와 단관을 과감히 극복하여 언제나 자랑찬 승리를 만들어냈다.
 혁명적당군인 인민군대가 앞장서서 일

이제인 승리의 진격로를 따라 전체 인민이 활을 끼고 어깨를 걸고 적대세력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사회주의전야를 폭풍 적셔나가고있다.
 군민협동작전의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성리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최 룡 해 동 지 재령군 가뭄피해실태 료해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새명군의 가뭄피해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가뭄피해막이투쟁에 한사람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일군들, 청소년과의교양부서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국인 참된 아들들, 소년혁명가가 되자》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동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론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각지 농촌청년들 가뭄피해막이전투에서 련일 혁신

전당, 전국, 전민을 가뭄과의 투쟁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 따라 각지의 농촌청년들이 가뭄피해막이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봉천, 신상협동농장을 비롯한 황주군인의 협동농장 청년들은 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15개의 굴포를 만들고 수만㎡의 밭도랑가시기를 진행한데 이어 불주기에서도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개성시인의 농촌청년들이 불원전을 모조리 찾아내고 피해가심한 논밭들에 물을 대기 위한 돌격대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단 4일동안에 380여개소의 굴포, 굴포파기를 진행함으로써 300여정보에 달하는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댈수 있게 하였다.
 강동군 봉희협동농장의 청년들은 자체의 힘으로 고장난 양수기를 수리하여 민가들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무덤소와 모든

주조 국제기구대표부, 협조기구성원들 가뭄피해상황 료해

주조 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엔개발협력기구, 스웨덴인민당 외부협력조사부, 우리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십자회 국제연맹대표단 성원들이 27일 황해남도 온성군, 안

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 소년단조직들에서 모든 소년단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이 땅의 모든 재물들을 귀중히 여기며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재물로 가꾸어가는 나 어린 소년애국자들로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가지 사회적활동과 좋은 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국건설전선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도록 함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조직생활을 통하여 조직성과 규율성을 키우고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어나가도록 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소년단 지도원들과 분지도원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높은 책임성과 실무능력을 가지고 소년단사업을 끝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소년단사업의 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나감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함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 세차게 지퍼올린다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완수하던 나날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이 지휘성원들인 일꾼들이 오늘날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만리마속도창조를 향한 전진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12월 5일청년광산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자랑연이 삼겹이고 승리의 길이 라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중앙

12월 5일 청년광산 일꾼들의 사업에서

광산을 출가차에 빌려 지난 6월 19일까지 연간 광물생산계획을 일일제 수행하는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의 비결은 일꾼들이 수명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전진하는 데로의 일장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 줄과 구를 열어나가면서 노동자들을 중앙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에 도입있게 불러일으킨데 있다.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올해 정초 어느날이었다. 광산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꾼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본체로서의 초점은 어렵고 부하현안이 많은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년간계획을 일일제 수행하였는가 하는데 집중되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얼마후 초급당위원장 김철을 동무의 목소리가 울렸다. 《동무들, 다들 알다시피 우리 광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위하여 불소 창설을 해주신데 대하여 장군님께서 특별히 꾸러주신 보배광산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의 투쟁투쟁을 창조적 힘을 바탕으로 올해 6월 19일까지 연간 광물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일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름동안애 일어난 기적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순간순간이 영웅적 위훈으로 수놓아지고 있는 흥경전광산의 시대에 서고 신원세멘트공장에서도 사람물을 놀래우는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거대한 중앙의 총공격으로 우리 조국에 비약의 승격을 다룬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들이 10년을 1년으로 추방삼아 폭풍처럼 내달리다. 대대적으로, 현달적으로 혁신적성과들을 이끌어내가고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보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긴급협의회가 열렸다. 무거운 공기가 흐르던 그때 기수장 황철봉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결사관원을 맡이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고 실천이여야 합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두가 결사의 각오를 안고 펼쳐나오도록 부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꿰뚫었다. 전열사령관들의 말을 대신했다. 정철봉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이 적적 조응해나갔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결사관원을 맡아는 불리할 리도, 죽을 리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드림같은 신념이고 의지였다. 드디어 총공격을 일러는 힘찬 구령소리와 함께 로를 복구하기 위한 결사투쟁이 벌어졌다. 현장에 불타오르는 화염선봉의 포성이 울려 퍼지는 속에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너도나도 앞을 닦아주

었다. 그들은 오늘이 다르고 순간순간이 영웅적 위훈으로 수놓아지고 있는 흥경전광산의 시대에 서고 신원세멘트공장에서도 사람물을 놀래우는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거대한 중앙의 총공격으로 우리 조국에 비약의 승격을 다룬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들이 10년을 1년으로 추방삼아 폭풍처럼 내달리다. 대대적으로, 현달적으로 혁신적성과들을 이끌어내가고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보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긴급협의회가 열렸다. 무거운 공기가 흐르던 그때 기수장 황철봉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결사관원을 맡이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고 실천이여야 합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두가 결사의 각오를 안고 펼쳐나오도록 부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꿰뚫었다. 전열사령관들의 말을 대신했다. 정철봉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이 적적 조응해나갔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결사관원을 맡아는 불리할 리도, 죽을 리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드림같은 신념이고 의지였다. 드디어 총공격을 일러는 힘찬 구령소리와 함께 로를 복구하기 위한 결사투쟁이 벌어졌다. 현장에 불타오르는 화염선봉의 포성이 울려 퍼지는 속에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너도나도 앞을 닦아주

과학기술로 진격의 돌파구를

광산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5개년전학수행의 돌파구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열어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는데 힘을 쏟았다. 그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꾼들이 수명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만리마속도창조를 향한 전진총공격전에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 대중의 일에서 돌격투쟁을 열어나갈 때 이루어야 하는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파기자 송 창은

금광의 영웅소대와 우리 대대

광강도도시건설려단 건구대대 지휘관들과 대원들

이 하는가?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고있었다. 방도는 대동적기술혁신운동에 있었다. 최대의 증산하면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을 다그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나타났다. 큰 대대가 펼쳐나갔다. 대대에서는 생산의 첫 공적인 제재소에서부터 기술혁신의 불꽃을 추켜들기로 하였다. 소대장들이 제정, 박봉식동무를 비롯한 제1, 2소대의 전투원들을 소대의 힘과 지혜를 합쳐 제대혁신형용을 실시할 수 있는 때쯤으로 교묘하고 밀착한 자동식으로 개조하였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통나무를 하루에 5m정도밖에 컸지 못했던대도 이제는 하루에 12~15m의 적수 있게 되었다.

당일 은정속에 생일상을 받아안은 지식인들

어머니당의 파사로는 풍속에서 지식인들의 깊은 삶이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날도 생일을 맞이한 남포수신대학 교원인 교수, 박사 선생들과 강연실로 사 공론까지 정중모예로 온정이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해방전 가난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난 신동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는 조국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치셨으며 김형직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후대교육사에게 한평생을 바쳤다. 나라의 교육사업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일상을 보내주시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일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조선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 진행

조선우주협회 제3차위원회가 2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우주협회 위원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우주과학기술도론회-2017》을 성과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본체들이 도의되었다. 조선우주협회 위원장인 리철을 김철공명총합대회 부총장이 맡았다. 그는 우주개발사업을 국력강화와 경제발전의 필수적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기술혁신이 자 증산이다

성천강전기공장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면 5개년전학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금지와 영예안고

그렇게 몇달이 지난 2009년 5월 평양시내의 해당 부문의 의료일꾼들은 조일용동무가 파의 의료일꾼의 힘으로 수술을 단행할 결심을 하였다. 놀라운 소식에 접하였다. 본체의 수술로 말하면 앞선 기술을 요구하는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수술이었다. 더우기 이런 정중의 수술은 의료일꾼이 풍부한 함경남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나날 비수정동무는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 다시 섰다. 그리고 그는

평양 산원 에서

한가롭게 어머니로서, 안료로서 지식들과 남편을 따듯이 돌보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후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날은 평양시내의 의료일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입정환부의 가슴을 열어준다고 믿고있었다. 행여나 하는 가계조차 알고 환자의 가족속에서 맥을 놓고있던 그때 파강 조일용동무를 비롯한 다른 의료일꾼들은 개수정동무의 과감한 수술을 개수정동무의 용하여 생존기일을 열어나 더 높이는가 하는것은 수술후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의료일꾼들은 평소처럼 20여명의 세 대 의료일꾼들은 밤에도 잠 못 들며 애쓰는 최신훈동무를 도와 절제적지혜와 열정을 합쳤다.



만리마속도창조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과학기술이 통마를 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양열을 맞으며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일일제 완수한 김태평인민합기업소 공물생산 4.5공고경찬영웅소대에 축하전문을 보내주시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지난 4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이런 낯익은 세련된 영예에서 편앞에 대장령 리중수동무와 대원들이 모여있다. 공물의 광물부품엔 만리마를 타고 달리시던 편 앞 어떻게 해

평양 산원 에서

한가롭게 어머니로서, 안료로서 지식들과 남편을 따듯이 돌보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후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날은 평양시내의 의료일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입정환부의 가슴을 열어준다고 믿고있었다. 행여나 하는 가계조차 알고 환자의 가족속에서 맥을 놓고있던 그때 파강 조일용동무를 비롯한 다른 의료일꾼들은 개수정동무의 과감한 수술을 개수정동무의 용하여 생존기일을 열어나 더 높이는가 하는것은 수술후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의료일꾼들은 평소처럼 20여명의 세 대 의료일꾼들은 밤에도 잠 못 들며 애쓰는 최신훈동무를 도와 절제적지혜와 열정을 합쳤다.

조선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 진행

조선우주협회 제3차위원회가 2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우주협회 위원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우주과학기술도론회-2017》을 성과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본체들이 도의되었다. 조선우주협회 위원장인 리철을 김철공명총합대회 부총장이 맡았다. 그는 우주개발사업을 국력강화와 경제발전의 필수적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평양 산원 에서

한가롭게 어머니로서, 안료로서 지식들과 남편을 따듯이 돌보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후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날은 평양시내의 의료일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입정환부의 가슴을 열어준다고 믿고있었다. 행여나 하는 가계조차 알고 환자의 가족속에서 맥을 놓고있던 그때 파강 조일용동무를 비롯한 다른 의료일꾼들은 개수정동무의 과감한 수술을 개수정동무의 용하여 생존기일을 열어나 더 높이는가 하는것은 수술후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의료일꾼들은 평소처럼 20여명의 세 대 의료일꾼들은 밤에도 잠 못 들며 애쓰는 최신훈동무를 도와 절제적지혜와 열정을 합쳤다.

조선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 진행

조선우주협회 제3차위원회가 2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우주협회 위원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우주과학기술도론회-2017》을 성과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본체들이 도의되었다. 조선우주협회 위원장인 리철을 김철공명총합대회 부총장이 맡았다. 그는 우주개발사업을 국력강화와 경제발전의 필수적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평양 산원 에서

한가롭게 어머니로서, 안료로서 지식들과 남편을 따듯이 돌보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후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날은 평양시내의 의료일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입정환부의 가슴을 열어준다고 믿고있었다. 행여나 하는 가계조차 알고 환자의 가족속에서 맥을 놓고있던 그때 파강 조일용동무를 비롯한 다른 의료일꾼들은 개수정동무의 과감한 수술을 개수정동무의 용하여 생존기일을 열어나 더 높이는가 하는것은 수술후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의료일꾼들은 평소처럼 20여명의 세 대 의료일꾼들은 밤에도 잠 못 들며 애쓰는 최신훈동무를 도와 절제적지혜와 열정을 합쳤다.

